

## 우리銀, 캄보디아 내 자회사 합병

# 현지 서민금융시장 영업 강화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순익 14배↑  
총대출금 총 70여개 경쟁사 중 최대  
해외수익 비중 중장기적으로 확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위치한 WB파이낸스 본사 전경.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캄보디아 내 자회사간 합병을 통해 현지시장 공략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년간의 준비와 캄보디아 금융당국 인가를 거쳐 우리은행의 캄보디아 자회사인 WB파이낸스와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를 WB파이낸스로 합병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저축은행인 WB파이낸스와 소액여신금융사(MFI)인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의 합병을 통해 캄보디아 금융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4년 7월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인수를 시작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했다. 인수 5년만에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의 총대출금과 순이익은 각각 12배, 14배 증가했으며, 총

대출금 규모는 현지 70여개 경쟁사 가운데 최대다.

우리은행은 리테일 영업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여수신 영업이 가능한 저축은행 WB파이낸스를 2018년 6월 추가로 인수했다. 캄보디아 전역에 116개의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WB파이낸스의 총자산은 인수 1년만에 60% 가까이 성장했다.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와 WB파이낸스의 성장에 힘입어 우

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당기순이익은 2017년 400만달러(USD)에서 지난해 1700만달러까지 증가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합병으로 핀테크 및 플랫폼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의 금융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현지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 전용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캄보디아 현지 리테일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합병법인의 자산 및 수익은 캄보디아 저축은행 중 다섯 번째에 이른다”며 “WB파이낸스를 중장기적으로 상업은행으로 전환해 캄보디아에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을 포함한 우리금융전 그룹사는 신남방정책에 따라 핵심 성장지역인 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 등 투자확대 및 체계적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해외수익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코로나19 관련 상담·금융지원 상황(2.7~2.12)〉

(단위: 건, 억원)

	상담	금융지원	정책금융		
			정책금융	은행권	카드*
신규대출·보증	건수	5,137	67	46	21
	금액	-	123.1	96	27.1
만기연장·상환유예	건수	101	128	113	15
	금액	-	600.3	483.3	117
금리·보증료 우대	건수	99	1	-	1
	금액	-	2.7	-	2.7
수출입금융	건수	-	7	7	-
	금액	-	6.5	6.5	-
기타	건수	755	398	-	4
	금액	-	66.6	-	35.5
합계	건수	6,092	601	166	41
	금액	-	799.2	585.8	182.3

\* 결제대금 청구유예, 금리·연체료 할인, 무이자할부 제공 등

/금융위원회

## 코로나피해 中企·자영업 금융업계 800억 지원

만기연장·상환유예 600억 多  
신규대출·보증 123억 뒤이어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은행·카드사)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800억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지난 7일 이후 12일까지 4영업일 간 피해 기업에 799억2000만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만기연장·상환유예가 600억3000만원(128건)규모로 가장 많았고, 신규대출·보증이 123억 1000만원(67건)으로 뒤를 이었다.

앞서 금융위는 앞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총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

나19로 매출이 줄거나 중국기업과의 거래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이다.

피해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과 원금상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봉쇄된 중국 내 지역 기업으로부터 자금이나 물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신용장 만기 연장, 부도등록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자금 사정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극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대책에 따른 금융 지원(대출·보증)이 추후 부실화해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면책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조직화된 보험사기, 소액 공모도 위법

### 금감원 Q&A

Q. 오토바이 배달 알바를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연락해보니 단순한 배달이 아니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 거절했지만 매우 높은 시급을 약속하기에 잠깐 흔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알바, 해도 되는 걸까요?

A. 고의로 자동차 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배달대행업체가 늘어나면서 10·20대 배달원들에게 이러한 유혹이 많아졌다고 합

니다. 이런 내용의 SNS 광고 등을 보시면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요즘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주요 사기유형과 관련 당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고 미용시술을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브로커들은 주로 비만치료제(삭센다 주사) 등을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허위로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도록 권유하는데, 진료내용과 다른 진료 확인서는 요구하셔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주위의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사고내용을 조작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수관 누수로 이웃에게 피해를 유발한 사람이 누수된 배수관의 세대표지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지인의 세대로 변경해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탁을 받은 지인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해달라는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김희주 기자 hj89@

## “대부업 이용전에 서민금융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연대보증은 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전엔 공적 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등록된 곳에서 대출금리와 연체이자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보다 높게 요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대부업체 이용 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다. 수수료나 공제금 등 명칭은 달라도 대부업체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해 계산해야 한다. 기존 연 24%를 넘는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대출 계약을 맺을 때는 금리를 비롯해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받아

야 한다. 계약은 자금 필요기간에 맞추는 것이 좋다. 장기로 맺으면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 부담이다. 이용자가 줄 필요가 없다.

개인대출은 연대보증은 필요없다. 지난해 1월부터 연대보증 관행은 폐지됐다. 대부업체가 오래 전 채무에 대한 상황을 요구하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상환유예나 채무감면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도 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삼성카드

#### 빅데이터 활용 ‘V4’ 출시

삼성카드가 빅데이터를 통한 생활비 자동납부 혜택 및 디지털·온라인 서비스 혜택 강화로 업그레이드 된 ‘숫자카드 V4’ 시리즈를 출시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2011년 11월 숫자카드 시리즈를 처음 출시한데 이어 2014년 숫자카드 V2, 2018년 숫자카드 V3를 출시했고, 이후 2년만에 새로운 버전인 ‘숫자카드 V4’ 시리즈를 출시하게 됐다. 숫자카드는 현재까지 1400만매가 넘게 발급되며 삼성카드의 대표 신용카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숫자카드 V4’는 최근 저성장과 경기둔화에 따른 고객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도시가스·통신비·4대보험 등 생활비 자동납부 시 합산 금액 10만원 당 1000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또한 디지털·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최대 5% 할인을 제공하는 등 관련 혜택을 강화했다. /홍민영 기자



이대훈 NH농협은행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 13일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화훼 농가를 방문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 NH농협銀, 화훼농가 소비촉진 한몫

코로나19 영향 어려움 겪는 농가 애로사항 청취, 지원방안 마련

NH농협은행은 지난 13일 이대훈 행장이 충남 공주시 사곡면 화훼농가를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화훼농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성수기에 졸업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가격 폭락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행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비촉진과 각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협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부터 기업은 최대 5억원,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 중이다. 최고 1.00% 이내(농업인 최대 1.70% 이내) 대출금리감면과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 등의 금융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또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화훼농가 돕기 SNS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되며, 봄을 맞아 축하하고 싶은 사연을 댓글로 응원하면 응모자 중 1004명에게 3만원 상당의 꽃다발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이 행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훼농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루 빨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